

‘제3대 수협은행장’ 추가 공모… 관료 출신 등판에 ‘술렁’

5파전서 2명 추가… 경쟁 치열
관 출신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이목
일각선 ‘은행업 이해도 부족’ 예상

수협은행이 차기 은행장 후보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지난달 행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한 결과 한 차례 더 후보자를 받기로 한 것. 일각에서는 관료출신 행장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두 명의 인물이 추가로 지원했다.

2일 수협은행에 따르면 차기 행장 후보 추가 지원 기간에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과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차기 행장 자리를 두고 5파전을 예고했으나 뉴페이스의 등장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지난달 31일 추가 모집을 종료한 가운데 오는 7일 행추위는 두 번째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가로 지원한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은 1966년생으로 행정고시 35회



Sh수협은행 외경.

/뉴시스

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에서 보험제도과와 은행제도과를 거친 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 행정관직을 보냈다. 이후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과 자산운용과장, 보험과장직을 역임한 뒤 2019년 제2대 한국신용정보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후보자 중 유일한

관료 출신이다.

강철승 전 중앙대 교수는 수협은행장 자리에 두 번째 도전장을 던졌다. 강 전 교수는 수산청에서 수산직공무원으로 14년 동안 근무한 이력이 있다. 2004년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기 전부터 수산업에 대해 애정을 가진

인물이다.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2008년에는 한국수산업정책포럼을 출범시켜 대표직을 역임하고 있다. 수산업에 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간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수협은행의 재공모 가능성을 예고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었다. 기관과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할 때 웅만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이 관료출신 대표선임을 지향하고 있는 가운데 수협은행 또한 예외는 아닐 것이라 관측이다.

다만 두 인물 모두 은행업에 관한 이력은 기존 5명의 지원자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신 원장의 관련 업무 경험은 은행제도과에 몸담고 있던 시절이 전부이며 강 전 교수의 경우 은행 업무에 관한 경력이 전무하다. 일각에서는 3차 재공모 가능성 또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도 행장 선임을 놓고 2차례 재공모에 나선 이력이 있다. 행추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해 이번이 재공모를 결정했다. 행추위는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각각 추천한 인물 3명과 함께 수협중앙회장이 추천한 인물 2명으로 구성해 총 5명이다. 최종 행장 후보로 발탁되기 위해서는 행추위원 5명 중 4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실상 의견이 하나로 모아는 만장일치 수준의 후보자가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이로써 새로 지원한 2명을 포함해 차기 행장 자리에 도전한 인물은 현 행장인 김진균 수협 은행장과 강신숙 수협중앙회 금융 담당 부대표, 권철철 전 Sh수협은행 부행장, 김철철 전 Sh수협은행 부행장 최기의 KS신용정보 부회장 등을 포함해 총 7명이다.

7명의 인물은 오는 7일 행추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기 행장 후보 추가 모집에 대해 수협은행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선별하기 위해 추가 모집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 지원했던 5명의 후보자들이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i19@metroseoul.co.kr

美 연준 피벗 기대감… 파월 입에 시선집중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확실시
연준 “긴축 속도 신중하게 논의”
속도조절 공론화면 증시 안도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75bp(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관련 피벗(입장 전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2일(현지시각)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6·7·9월에 이어 11월까지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p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미국 기준금리는 3.75~4.00%다.

또한 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12월 금리인상폭 축소 여부와 시그널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토퍼 윌러 미 연준 이사는 지난달 연설에서 “다음 회의에서 긴축 속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더 제약적인 영역으로 움직이면서 적절한 긴축 속도를 결정하기 위해 신중하게 자료를 살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목소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은 연준의 금리인상 관련 ‘피벗’으로 쏠려 있다.

이달 네 번째 75bp 금리 인상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연준이 마냥 자이언트 스텝을 유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가 시장 금리를 토대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예측하는 페드 워치 툴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55.5%로 보고 있다. 11월 75bp 인상한다는 전제다. 이 확률은 지난달만 해도 24.2%에 불과했다.

반면 12월 FOMC에서 75bp를 올릴 확률은 39%로 이 역시 지난달 75.4%에 육박했다.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국내에서도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5일 1444.2원까지 치솟으면서 연고점을 갱신했지만 현재는 1410원대로 하락하면서 완화 가치 하락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2300으로 회복했고 코스닥 역시 700으로 회복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선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하다. 10월 한달간 외국인은 3조2370억원을 순매수했고 이 기간 코스피는 6.4%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외국인이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속도조절 이슈가 공론화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에는 단기 안도감이 유입될 것”이라며 “11월 초 발표 예정인 고용지표 등이 전월 대비 부진할 경우 이번 FOMC 결과와 맞물려 금리 인상 속도 완화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카뱅, 3분기 순이익 787억… ‘역대 최대’

가계대출 이자이익 등 견인

카카오뱅크의 3분기 순이익이 78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19억원)보다 51.3% 증가한 수준이다. 누적 순이익은 2025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2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3분기 순이익은 78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8.1%, 전년 동기 대비 51.3%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41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4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 늘었다.

3분기 영업수익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영업수익은 1조1211억원, 영업이익은 2674억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48.3%, 30.4% 증가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들이 꾸준히 카카오뱅크를 찾으면서 실적도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는 9개월만에 지난해 12개월 동안의 성과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특히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여신잔액이 증가하며 이자이익이 증가했다. 여신잔액은 같은기간 25조 9000억원에서 27조5000억원으로 6%늘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도 3조 288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 4643억원대비 22.9% 증가했다. 2월 출시한 주택담보대출은 누적 약정금액 807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3분기 누적 이자수익은 89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03% 증가했으며 비이자수익은 2269억원으로 같은 기간 9.45% 늘었다.

3분기 기준 순이자마진(NIM)은 2.56%를 기록해 2분기 2.29%보다 0.27%포인트 커졌다. 연체율은 0.36%로 2분기 0.33%에서 0.0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적금 등 수신잔액도 늘었다. 수신잔액은 지난해 말 약 30조원에서 9월말 기준 약 34조6000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저원가성 예금이 꾸준히 확대돼 62.1%의 비중을 기록했다.

한편 카카오뱅크의 9월말 기준 고객수는 1978만명으로 상반기 1917만명에서 3개월만에 60여만명이 증가했다. 연령별 고객비중은 ▲10대 8% ▲20대 27% ▲30대 25% ▲40대 23% ▲50대 이상 19%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2000만 고객 기반에 힘입어 역대 분기 최대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카카오뱅크 미니, 개인사업자 बैं킹 등 플랫폼 사업 강화로 실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시장 불안정”…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흥국생명이 지난 2017년 발행한 5억 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시장 금리 상승(채권값 하락)과 채권시장 불안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2일 흥국생명은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시장 금리가 너무 오르고 채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이다. 원래 신종자

본증권을 신규 발행해 콜옵션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수요 예측이 안 나는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시장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달 9일로 예정된 5억달러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 금리 상승과 채권시

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시장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행사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콜옵션 미행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이 발행됐던 당시의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였지만 최근 들어 1400원대까지 올라서면서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우리은행

앱 ‘선물하기’ 기능 추가

우리은행은 우리WON뱅크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개인 간 모바일쿠폰 구매 및 선물, 받은 쿠폰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쿠폰함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우리은행 이벤트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만 우리WON뱅크에서 확인하고 사용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경품으로 받은 모바일

쿠폰 외에도 개인이 구매, 선물한 쿠폰도 우리WON뱅크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우리WON뱅크 ‘선물하기’는 ‘모바일 쿠폰몰’에서 쿠폰 구매, 선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쿠폰함’에서는 우리은행 이벤트 경품 쿠폰, 우리WON뱅크 ‘선물하기’를 통해 받은 쿠폰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쿠폰 불러오기’를 통해 우리WON뱅크 회원가입 전에 받은 선물도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승용 기자